

# 통일문제 문학과 현실의 거리

: 북한소설에서 '실천적 리얼리즘'의 모색

노귀남

## 1. 들어가서 말

‘의미’ 또는 ‘가치’<sup>1)</sup>에 대한 신념과 회의, 이것은 남북한 문학에서 큰 차이를 낳는 지점이다. 북한문학은 당 문학으로서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미의 회의는 없다. 반면, 남한문학은 목적과 방법에 대한 일치된 지점도 없고, 어떤 의미도 절대적 권위를 가질 수 없을 뿐 아니라 끊임없이 흔들리며, 작가는 회의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의미를 찾게 된다. 민중문학, 민족문학이 1980년대 문단에서 우위를 차지했던 것처럼, 역사의 한 시점에는 신념이 통하는 문학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역시 얼마 못 가서 ‘잔치는 끝났다’는 식으로 그 신념은 추락한다.

그런데 적어도 문학이라는 장은 남아 있고, 여기에 대한 어떤 지향, 다시 말해 최소한의 신념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문학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무엇은 왜 남는가. 이것이 가지는 의의가 북한문학에서 선명하게 드러내는 ‘신념’과는

---

1) 의미는 절대적인 것일 수 없다는 뜻에서 가치개념이 들어간다. 해석학에서, 그 의미는 significance에 가까우며, 이 말과 구별해서 meaning은 명확하고 불변하다는 것으로 본다. 후자의 의미는, 워셋(W. K. Wimsatt)과 비어즐리(Monroe C. Beardsley)가 말한 ‘의도의 오류(intentional fallacy)’에 대한 반론으로, 허쉬(E. D. Hirsch)가 말한 ‘작가가 의도한 언어 의미’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것은 작가의 가치관에서 굴절해 나오는 ‘상대적인’ 의미로 봐야 할 것이다.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어떤 동질성이 있는가. 우리에게 통일문학사는 가능한가. 이것을 거칠게 말하면, 북쪽은 유일한 이념을 중심으로 세운 체제에 따른 당연한 신념일 테이고, 남쪽은 가치의 절대적 중심이 없이, 다양성을 추구하는 세계의 흔들림이고 회의일 것이다. 그리고 양쪽이 각기 ‘문학 세계’라는 의미 찾기에서 서로 결는 고리를 얻을 것이다.

이런 기계적 대입으로는 체제의 이질성만큼이나 먼 남북한 문학이 진정으로 만날 길은 없다고 본다. 당연히, 삶에는 상호 방문, 경제 교류와 같은 만남을 통해야만 동질성도 이질성도 있다. 이 점은 문학도 마찬가지로 만남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시인, 소설가가 상호 방문하는 것만 의미하지 않는다. 사회적 의미와 함께 문학적 방법이 있어야 한다.

이 글은 그 문제를 ‘문학행위’를 축으로 하는 ‘매개’와 ‘전형’을 핵심 용어로 삼아 설명함으로써, 문학연구에서 남북한 문학을 아우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것은 기존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서 출발하는 것이므로, 연구사에서 중요한 문제점을 찾아 먼저 짚어보기로 하자.

1988년 7·7 특별 선언은 북한에 대해 화해정책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전향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후, 냉전 체제의 변화와 함께, 사회과학계에서 북한연구 시각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것처럼,<sup>2)</sup> 문학계에서도 ‘북한문학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한다.<sup>3)</sup> 이것은 반공과 멸공에서 화해로 가는 현실상황의 변화에 따라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이고, 또 “북한이라는 연구대상은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매우 다르게 인식되고 평가되어 왔다”<sup>4)</sup>는 점에서 ‘시각’이 문제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그 접근이 내재적이냐, 외재적이냐, 또는 내재비판적이냐는 논란<sup>5)</sup>을 불러일으켰다. 북한문학을 이해하는 데도 ‘하나의 시각’을 확보하는 것이 문제

2) 최완규, 『북한은 어디로』(마산 : 경남대학교 출판부, 1996), 28쪽.

3) 줄고, “북한문학의 혁명전통과 전형의 변화”, 『새국어교육』 제54호(1997), 598~600쪽 참조.

4) 최완규, 『북한은 어디로』, 25쪽.

5) 앞의 책, 28~32쪽 참조.

였다. 예를 들면 김재용은 “북한문학을 검토할 때 연구자는 역사주의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sup>6)</sup>고 했다. 그의 접근은 텍스트의 문제를 비롯해 사실에 대한 시각의 엄격성, 객관성, 실증성 등을 중요시하는 ‘실증적 역사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때 문제되는 것은 사실(facts)과 가치(values)가 과연 구분할 수 있는냐는 점이다. 김재용이 주장한 시각은 근대 민족문학이라는 역사적 시각, 탈냉전의 시각, 리얼리즘 본래적 시각 등에 입각한 역사주의이다.<sup>7)</sup> 북한문학을 ‘근대 민족문학’이라는 역사의 도정에 놓을 때, 근대와 민족에 대한 가치판단을 전제해야만 한다. 탈냉전의 다음에 대해서도, 리얼리즘의 근본에 대한 것도 역시 가치개념이 들어가야 성립할 수 있다. 말하자면, 사실을 의미로 포착하는 데는 반드시 어떤 가치가 개입한다는 뜻이다. 이 점은 시각이 필연적으로 연구 방법론 또는 이론으로서의 ‘가치체계’를 확보함으로써 온전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그렇다고 ‘시각’의 문제를 ‘연구 방법론’과 개념을 혼동시킬 수 없다. 이 둘이 구별이 되지 않음으로써, 연구가 자칫 북한사회에 대해 긍정적, 비판적, 부정적이냐는 입장을 차별하는 수준에 머물 수 있기 때문이다.<sup>8)</sup>

결국, 사실과 가치의 문제, 또는 앞에서 제기했던 신념과 회의의 문제를 포함해서 자료와 텍스트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결정하는 방법론이 중요하게 된다.

북한연구에서 엄밀한 연구가 어려운 점은 누구나 경험하는 바대로 자료의 부족, 수집의 어려움, 수집된 자료의 신뢰성 문제 등으로 인한 제한 때문이다. 대부분 연구는 대상 자료의 일부만 확보한 상태로 이뤄지고 있고, 또 북한자료의 성격상 이중적이고 시기별 서술 편차를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뿐만 아니라, 주로 2차 자료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모든 문제 때문에, 주어진 1차 자료를 성실하게 분석하여 거기에 상응하는 의미를 곧장 얻어낼 수 없다. 부분과 전체의 관계, 드러난 자료와 은폐된 내용의 관계, 2차 자료의

6) 김재용, 『북한문학의 역사적 이해』(서울: 문학과학지성사, 1994), 14쪽.

7) 앞의 책, 11~15쪽 참조.

8) 강정인의 경우는 송두율, 강정구, 이종석 등이 견지하는 내재적 접근법을 비판하여 외재적 접근법과 ‘병용’하는 사실 접근을 중요시하며, 이 문제를 ‘연구 방법론’의 하나로서 고찰함. “북한연구 방법론 I : ‘내재적 접근법’에 대한 비판적 성찰”, 서강대 동아연구소, 『동아연구』 제26집(1993. 8), 1~54쪽 참조.

원형과의 관계 등에서 그 심층의 의미를 찾아내는 분석 작업이 있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자료 분석의 정교한 이론적 틀이 중요하다.

우선 자료 범위가 부분적인 문제에서 보면, 그 일부를 가지고 전체의 사실/현상에 대해 판단해야 하는, 성급한 보편화의 오류를 범할 위험을 안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문학사에서 조기천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자. 주체사상에 입각한 혁명 문학에서 조기천의 장편 서사시 “백두산”은 ‘수령형상문학’의 최고봉으로 꼽힌다. 그런데 조기천은 주체문학론이 확립되기 훨씬 전 6·25전쟁 중에 죽었다. 수령형상문학이라는 후대의 개념을 그 이전 작품에 적용해 읽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작가 세계에 대한 총체적 조망에 따라 이뤄져야 할 작업이다. 그렇지 못할 때, 작품 중의 한 부분을 작가와 작품의 전체 문맥과는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할 소지가 많아진다. 이 점을 염두에 둘 때, 조기천의 수령형상문학에 대한 평가는 무엇보다 작가론이 먼저 이루어진 뒤에 그에 따라서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수령형상문학의 최고봉이란 평가에 대한 평가는 유보될 수밖에 없고, 문학사에서 조기천에 대한 진정한 자리를 가늠하기란 거의 불가능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문학에서 작가론이 거의 이루어질 수 없는 형편이고, 북한문학 전체에 대한 진정한 조망과 평가도 불가능하다.

이때,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왜 수령형상문학에 초점을 맞추어 조기천을 평가했느냐는 접근의 관점, 즉 가치문제에서 점점이 있어야 한다. 어떠한 ‘가치’라는 보편적 개념의 틀을 통해 부분의 연구가 전체 문제를 논의할 매개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또 문제는 ‘어떤’ 가치일 때 가장 보편 타당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이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은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주최 ‘남북한 현대문학사 서술의 방향’에 대한 학술 세미나에서 시작된다. 여기서 김윤식은 카프문학의 정통성과 남북한 문학사의 연속성을 위해 ‘근대성’이란 개념에 관심을 둔다.<sup>9)</sup> 반면, 최동호는 남북한 현대문학사 서술에서 ‘근대성 극복’의 논리로서,

---

9) 김윤식, “남북한 현대문학사 서술 방향에 대한 예비 고찰—위기 의식의 두 양상”, ‘민연학술세미나’, 1995. 8. 29.

우리 시각으로 통괄할 ‘민족문학’의 확립을 요구한다. 근대성 극복은 전통 부정에 대한 반론과 민족의 주체적 역량에 기초하여 세계로 향하는 역사의 흐름을 가능함을 뜻했다.<sup>10)</sup>

그런데 근대성을 통한 문학사 통일로 갈 것인가. 그것의 극복을 통한 민족 공동체 회복 또는 민족문학의 통일로 갈 것인가. ‘근대성’ 설정은 북한문학을 한국근대 문학사의 연속선상에 놓을 수 있는 길을 트고, 남북한 문학에 공통되는 매개항을 설정했다는 방법론상의 강점을 갖는다. 그러나 문제는 1967년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유일사상기 혁명 문학을 문학사에서 거의 모두 배제시켜야 하는 점이다. 그렇게 되면, 개별 작품 이면에 숨겨진 진실 내지 가치는 무시되고, 문학과 사회를 일치시키는 당 문학의 성격상 뒤따르는 한계와 마찬가지로, 북한사회와 북한문학을 심층적 의미 분석 없이 단순 대응시키는 오류를 낳고 만다. 이 점에서 ‘근대성’이란 가치는 남북한 문학 전체를 보는 데 상당한 편견과 배제의 논리가 있음을 확인시킨다.<sup>11)</sup> 이런 오류는 마치 한국 현대사를 ‘근대화 과정’이라는 외재적 가치로 판단하는 문제와도 같이, 평가 잣대를 외재적 논리에 따라서 북한문학의 밖에서 끌어대었기 때문에 생겨난다.

근대성 극복과 민족문학의 논점에서 남북한 현대문학사를 서술할 때도, 전제된 논리를 충족시킬 이론을 마련하지 못하고, 남북한 문학의 시기는 공통되게 나누되 문학적 전개는 따로 다루는 한계를 보였다.<sup>12)</sup>

여기서 우리는 문학 분석과 이론들에서부터 북한문학에 내재된 가치를 매개하여 출발할 필요를 확인한다.<sup>13)</sup> 아울러, 출발은 내재된 가치를 매개하지만,

10) 최동호, “남북한 현대문학사 서술을 위한 몇 가지 시각”, 『민연학술세미나』, 1995. 8. 29.

11) ‘근대성’이란 서구적 가치개념 자체가 오늘날 문제적 논란거리로 되고 있다. 이 점은 정재서, 『동양적인 것의 슬픔』(서울: 살림, 1996) 참조

12) 최동호 편, 『남북한 현대문학사』(서울: 나남출판, 1995)에서 분단체제의 성립·심화·변화의 세 시기로 구분해 남북한 문학을 비교함.

13) 예를 들면, 북한문학의 인민성의 원칙에서 ‘인민성’을 ‘민주’로서의 가치개념으로 놓고 작품 분석을 하는 경우 시사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줄고, “‘인민성’의 문제로 읽은 북한문학의 변화와 전망”, 『경희어문학』 제17집(1997. 2). 참조.

그것을 남북한 문학 일반으로 확장하는 이론의 틀로 되지 못할 때 우리는 다시 북한문학 안으로 가라앉고 만다. 다시 말해, 북한문학에 대한 논란 초기에 백진기가 그것을 비판적으로 판단하기보다 ‘당 문학’이란 전제하에 북한문학 바로 알기를 해야 한다는 주장<sup>14)</sup>과 같은 차원으로 물러서게 된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또 북한연구가 ‘북한학’<sup>15)</sup>으로 가고, 통일의 길로 가는 새로운 역사의 ‘가치 세계’를 지향할 때 “방법론의 메타이론적 측면”<sup>16)</sup>은 매우 중요하게 요구된다.

방법론의 메타이론적 측면에 대한 모색으로서, 백낙청의 ‘분단체제’<sup>17)</sup>의 개념은 주목할 만하다. 이것은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장구한 역사 속에서 분단사회의 성격을 이론화할 필요성에서 제기되었다. 이 개념은 남북한 두 개의 분단사회를 망라하는 특이한 복합체이다. 동시에, 한반도 바깥 세계와 단절된 체계가 아니라, 분단의 생성과 재생산의 과정에서 외국세력과 관계로 설명되는 개념이다.

이 분단체제의 개념에 대해 윤지관은 민족문화론과 결합시켜 그 이념과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모색했다. 그는 분단체제의 설정이 가지는 효용성과 실천성을 강조했다. 분단체제 설정의 효용성은 한반도 전체의 시야에서 민족적인 이해의 성격과 그 주체를 조망함으로써, 남북체제 각각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넘어선 민중적이고 민족적인 남북 민족 구성원의 연합이 가능하고, 또 반민주적·반민중적 분단체제에 대한 인식과 그 극복의 전망이 열린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단순히 ‘민족의 분단’으로 인식한 경우 통일과, 세계체제와 관련된 ‘분단체제’에 대해 인식한 경우 통일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다. 앞의 통일은 그 후 자본주의적인 세계체제라는 더욱 강력한 체제의 억압이나 질곡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분단체제론은, 자본주의 체제가 세계체제로서 확연히 드러난 현 시점의 문제에 대한 극복 전망과 극복 운동까지, 이

14) 백진기, “북한의 문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실천문학』(1989 여름), 67쪽 참조.

15) 최완규, 『북한은 어디로』, 19쪽.

16) 이은숙, 『북한사회연구—사회학적 접근』(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8), 16~17쪽 참조.

17) 백낙청, 『분단체제 변혁의 공부길』(서울: 창작과비평사, 1994), 13~40쪽.

것을 현단계 통일운동 속에 담보하는 복합적인 인식을 가능케 하고, 이로써 그 실천에 있어 사회주의 몰락 이후 세계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또한 통일 이후 민족국가의 상을 고려하여 현단계 운동을 진전시킨다는 것이다.<sup>18)</sup> 따라서 민족문화의 이념은 단순히 민족통합만이 아니라, 세계체제 내에서 변혁적인 힘까지 담보하는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윤지관이 말한 민족문화의 ‘실천’은 전환기적 삶의 실상에 다가가는 리얼리즘의 실천이면서, 세계체제의 모순을 넘어설 전망까지 가지는 진정한 탈근대적인 지향도 동반하는 것이다. 이때 리얼리즘의 개념과 범위는 ‘탈근대적 지향’도 포함하는 것이어서, 그 폭이 상당히 넓어졌다고 봐야 하는데, 사실은 이 지점에서 다시 원론적인 문제에 부딪히고 만다는 사실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 즉, ‘탈근대적 지향’이 세계체제의 모순을 극복하는 것으로 설정한 것이라 할 지라도, 그것이 내포한 역사의 흐름이 근본적으로 서구적 발전 논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특히 한국의 외환 위기 이후 IMF 구도로 가고 있는 구조조정에 대한 회의를 생각해 볼 때, 탈근대적 지향까지 근본적인 문제로 검토해 봐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그 폭을 넓혔던 리얼리즘의 개념과 범위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지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한다. ‘탈근대적 지향’이라는 것은 세계체제의 모순을 극복하는 안티테제로서 지향해 가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대/탈근대라는 서구의 변증법적 논리를 포기하는 데서, 다시 말해 전혀 새로운 역사적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데서 그 문제를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서, 윤지관이 설정한 ‘실천’의 의미에서 북한문학을 살펴보자. 그가 말한 리얼리즘의 평가대로라면, 북한의 문학이야말로 “인간을 기 존사회나 체제에 순응시키는 이데올로기적인 체제내화 논리에 가장 직접적으로 봉사하는 문학”<sup>19)</sup>이다. 이런 평가에서, 삶의 현실을 ‘반영’하고 ‘생산’하는 리얼리즘적 의미는 미미해진다. 윤지관이 지적한 “체제에 봉사하는 문학”으로

18) 윤지관, “통일을 실천하는 문학—민족문화의 새로운 인식을 위하여”, 『리얼리즘의 옹호』(서울: 실천문학사, 1996), 17~18쪽.

19) 앞의 책, 30쪽.

는, “세계체제의 모순을 넘어설 전망까지 가지는 진정한 탈근대적인 지향도 동반하는 리얼리즘적 실천”이 안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전환기적 삶의 실상에 다가가는 리얼리즘의 실천”조차도 어렵다는 말이다.

그가 말한 리얼리즘의 개념과 실천 범위는 ‘탈근대적 지향’까지 포함하여 넓어진 것이고 앞으로 나아간 것이었다. 그런데 북한문학에서는 리얼리즘적 의미가 축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다. 또는 리얼리즘적 실천의 진전에서, 북한문학이 역행하는 것을 ‘통일 문학’의 차원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가치의 문제, 메타이론적 모색이 진지하게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그 ‘가치문제’는 삶과 현실의 문제로 확장시키는 의미를 문학에 담아내는 것을 뜻한다. 그 내용은 물론 통일문학 또는 남북한 공존의 길을 찾는 일일 것이다.

이런 뜻에서 작업하는 이 논문 가운데 이론상의 핵심어는 ‘문학행위’, ‘문학행위 주체’를 축으로 하는 ‘매개’와 ‘전형’의 개념이다. 이 용어는 기존 리얼리즘 문학이론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만, 여기서는 그것을 발전적으로 변형시켜 쓸 것이다. 분석 대상 작품은 문익환, 황석영, 임수경 등의 방북 이후, 더욱 관심이 높아졌던 통일문제를 소재로 한 북한 단편으로 한다.<sup>20)21)</sup>

## 2. 문학과 현실의 거리

### 1) 매개와 전형: 실천적 리얼리즘의 길

#### 매개: 의미상(意味相)의 매개성

공존은 역사주체인 우리가 살길이다. 그 길은 남과 북이 각각 ‘우리’를 인정

20) 『조선문학』 1990년 5월호 머리글에 “조국 통일 주제의 작품을 왕성하게 창작하자”라 하여,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에 따라, 작가들이 민족의 가슴에 통일 열망을 불러일으킬 것을 요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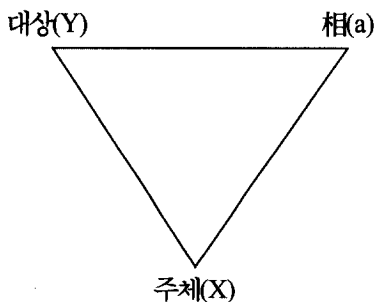
21) 이에 대한 주제 분석의 연구로, 김재용, “조국 통일 주제 문학의 새로운 양상과 그 의미”, 『북한문학의 역사적 이해』, 307~323쪽; 홍용희, “통일시대를 향한 문학적 도정—남·북한 소설에 나타난 이산과 상봉의 문제를 중심으로”, 『자유문학』(1997 봄) 참조



하는 데서 출발한다. 역사에서 우리를 죽이고 살길은 없다. 이 문제를 이론적으로 어떻게 수렴시킬 것인가가 메타이론의 관건이 된다. 또 경험현실과 문학현실이 어떻게 매개될 수 있는가가 문제이다. 그래서 주체, 매개, 전형 등의 개념을 방법론의 중추로 삼고자 한다.

문학에서 주체는 문학행위 주체이고 문학적 의미생산 주체이다. 그 생산에는 쓰기 이외에 '읽기'도 중요하다는 것을 서구에서 독자 심리, 독자 반응 비평 또는 수용미학에서 이론적으로 설명한다. 여기서 그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범위를 넘어서므로, 의미 생산에서 주체의 개념을 입론하는 기본적인 문제를 먼저 검토해 보자.

앞에서 조기천 문학을 '수평형상문학'에 초점을 맞춰볼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평가의 결과를 두고 시비를 가릴 것이 아니라 왜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하느냐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의미의 결과가 아니라 의미가 생산되는 과정에 생산 주체가 개입하는 데 있다. 의미는 대상에서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가 대상에 대해 작용( 실천/행위)하는 데서 얻어지는 결과이다. 즉 의미는 주체와 대상의 관계에서 나온다. 이것을 의미의 삼각 구도로 그리면 다음과 같다.



이 그림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대상 자체가 의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상(木)과 주체(目)의 관계가 '모습(相), 곧 존재'인 점이다. 이 존재는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체의 행위와 함께 끊임없이 움직이는 개념이다. 이런 뜻에서 존

재의 객관적 실체는 없다. 우리가 포착하는 것은 주체의 작용으로서의 존재 의미(상)이다. 존재는 주체의 실천(작용)에 의해 규정될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존재 의미를 '본질'이라 하고, 현실에서 실천으로서의 의미는 '현상'이라고 해서 그 둘을 분리할 수 없다. 곧이 말한다면, 이 둘은 서로 매개되어 있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인식이 중요한 문제로 된다. 대상을 하나의 존재로 괄호쳐서 객관적인 것으로 전제해 거기에 어떻게 접근해 가느냐는 것이 인식론이 될 터이다. 이것은 작용(움직임, 실천)의 문제를 배제시킨 점에서 관념론이 된다.

한편, 존재를 괄호치기를 하지 않고 현상 가운데서 바로 보는 인식도 있다. 즉 존재에서 작용을 분리시키지 않음으로써 작자(作者, 주체)의 작용이 곧 존재임을 아는 것이다.<sup>22)</sup> 이 작용의 결과를 '의미'라 하고, 의미로 포착하기 이전의 대상(현실 속의 사실)을 '존재'라고 할 때, 존재는 고정된 것이 아니므로 끊임없이 작용이 있고, 그 결과로 자꾸 다른 의미가 나오게 된다. 그렇다면 존재도 의미도 모두 잡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의미'를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의미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뜻에서 데리다(Jacques Derrida)는 차연(差延, différance)이란 말로 의미를 대신했다. 이 말은 '다르다'라는 의미들의 '차이(差異)'와, 동시에 지금 여기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미끄러져 흩뿌려진다는 '연기(延期)'의 효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곧, 의미란 '이것이다'는 존재를 부정하는 데 있다. 회의와 해체로 요약되는 후기 구조주의 또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인식은 관념론이나 본질론의 허상을 깨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런데 주체와 역사문제까지 회의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주체와 현실과 역사를 이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 문제를 '매개'라는 개념으로 풀어보자.<sup>23)</sup> 우선, 고정되지 않는 '의미'의 개념을 '상'으로 대체한다. 상은 '움직임', '작용', '작자가 지어 만듦', '주체가

22) 이 측면을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곧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때 마음은 물질과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다.

23) 상과 매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줄고, "한용운 시의 '상' 연구"(경희대 박사학위 논문, 1996), 39~53쪽 참조.

개입한 결과' 등의 상황으로 구성되는 개념이다. 여기서 '주체'라는 개념을 의미 속에 세울 수 있게 한다. 또, 상은 주체의 작용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서 잠정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에 하나의 '존재'임과 동시에 '다른 것'으로 가는 '매개'이다. 다시 말해, 하나의 의미로 고정되는 순간, 이것이 매개되어 다른 의미로 움직여서 또 다른 존재를 낳는다. 그러므로 상은 하나의 매개자로 인식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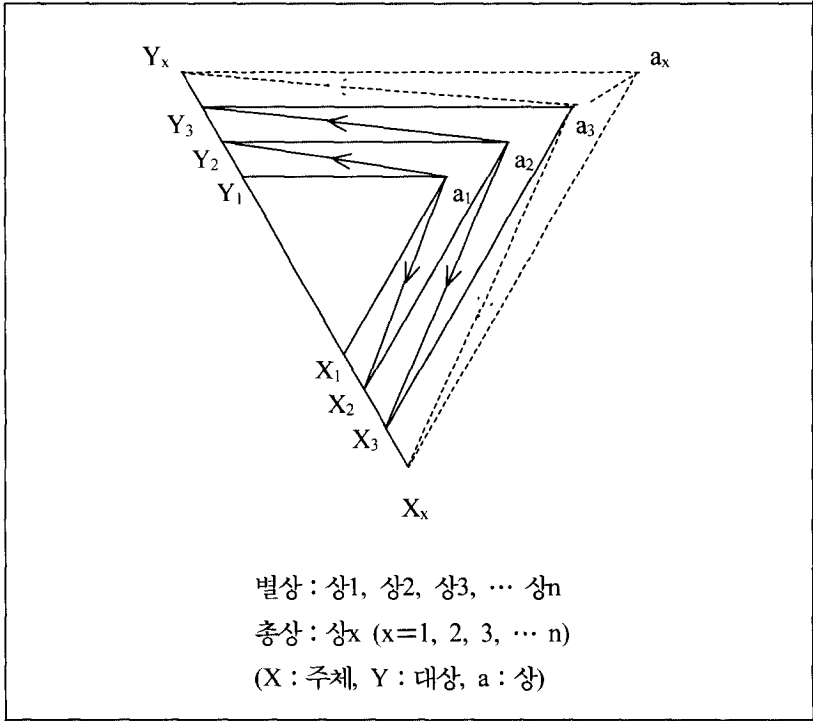
요컨대, 상은 주체가 개입하여 움직이는 의미라는 뜻에서 '의미상'이라 할 수 있고, 이것이 또 다른 의미로 역동해 가는 뜻에서 '매개상'이라 할 수 있다. 즉 주체의 작용(실천)은 의미 '생산 작용'이자 '매개 작용'이 된다. 상이 의미의 다른 말이면서 매개자일 수 있다는 뜻은 '대상'과 한 주체자의 '의미상'을 결합시키기 때문이다.

존재와 의미, 현상과 본질, 사실과 현실, 또는 현실과 문학 등에서 둘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좁히느냐 하는 '인식의 매개자' 문제를 '상'을 설정함으로써 풀어 가는 이익은 무엇인가. 상은 존재, 인식, 실천의 문제를 동시에 본다는 '일원론'의 강점이 있다.

매개를, 왜 '상'이라는 일원론적 구조 속에서 말하는가. 본질과 현상의 일원론적 구조 가운데에서 말하는 '매개'는, 결합 과정 이후 제3개념으로 밀려나가는 촉매 같은 것이 아니라, 매개시키는 두 항 속으로 녹아들면서 그 둘을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개념이다. 전통 목공에서 한 나무판과 다른 나무판을 접합하는 못의 개념은 매개이면서 바탕이기도 하다. 나무 자체의 바탕으로 보면 못이란 매개는 바로 나무 바탕과 같아진다. 매개하는 못이 바탕과 둘이 아니게 된다. 이와 같이 현상의 매개상<sup>24)</sup>을 통해 행위 주체는 무한히 새로운 의미상(의미, 존재)을 생산한다.

현실에 대한 문학의 관점을 설명할 때, 일원론과 이원론의 인식의 차이는

24) 하나의 상(相)은 다른 상을 만드는 주체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상의 개념은 매개상(대상)이며, 또한 행위의 결과인 의미상이다. 그래서 상은 주체의 행위에 따라 무한히 생산되어 벌어지는 개념이다. 이것을 개별상(個別相) 또는 별상(別相)이라 한다(『대승기신론』 참조).



크다. 상으로 접근하는 현실은 행위 주체와 함께 엮어나가는 현전하는 의미로 역동하는 것이며, 관념으로 설정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플라톤식의 인식으로 말하면, 현실에서 보는 존재현상에서는 현상 자체가 바로 진리의 본체라고 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현상은 무수히 변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만큼 무수한 본체(이데아)가 있다고 해야 하는 모순을 낳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스스로 자기정체성을 부정하므로 자체의 본 모습인 '실상(實相)'을 자신의 바깥에서 찾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모순을 극복하고자 현상을 부정하고 '이데아'를 따로 세우는 인식론을 택했을 것이다. 그러면 정작 현상의 문제는 배제하는 꼴이 되어서 다시 문제가 된다. 이것이 서구

적 이원론의 한계이다. 우리에게는 현상과 현실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문제점을 극복하는 것이 일원론이다. 이것은 대상과 주체의 관계 속에 현상의 실상이 있다고 본다. 이때 현상의 변화는 자체의 변화가 아니라 '주체와의 관계'가 바뀌는 것이다. 상에서 존재, 인식, 실천은 불가분의 관계에 놓인다.

상이란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문학행위 주체를 현전시키고, 동시에 현실을 실천관계로 바로 끌어오기 때문에 현실주의 문학을 새로운 차원으로 열게 한다.<sup>25)</sup> '상'은 역사주체를 이론적으로 수렴시킨다. 우리가 행위하는 만큼 현실 역사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포괄시킬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그것은 서구적 존재론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났다는 측면에서 통일을 포함한 진정한 역사의 전환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

#### 전형: 단편적 전형과 매개적 전형

앞에서 의미를 상이란 개념으로 바꿔 말했다. 따라서 아래에 쓰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상이란 개념에서 나오는 것이다. 상은 주체의 행위가 개입된 의미이다. 이것을 제1차 의미 생산이란 뜻에서 '상1'이라 하면, 다시 주체의 실천 가운데 상1은 매개자가 되어 제2차 의미상을 만든다. 이것을 '상2'라고 하면, 주체의 작용(실천)이 멈추지 않는 한 의미상은 상3, 상4...상n으로 역동하게 된다. 이 역동성은 '생산 작용'이며 '매개 작용'이다. 이때 각각의 상을 단위의 의미상이란 뜻에서 개별상 또는 별상(別相)이라고 하고, 이 의미상의 매개성을 통해 총체적인 의미를 총지(總持)한다는 뜻에서 총체상 또는 총상(總相)이라고 한다. 이것을 그림으로 보면 위와 같다.

이 그림에서 보는 바, 개별 의미는 하나씩의 상으로, 총체적 의미는 상의 총합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 총합은 닫힌 구도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개별상이 어디까지 매개되느냐에 따라 총체적 의미가 선다.

예를 들어, 단발령으로 상투를 자른 역사의 한 사실을 의미 규정해 보자. 상

---

25) 1980년대 말 90년대 초 우리 문학에서 현실주의의 좌절을 생각할 때에도, 그 이론적 틀을 수정할 필요성을 절감한다.

투를 하나의 '상징'으로 인식할 때, 그 원관념은 조선의 정신이고, 자르는 행위는 가장 조선적인 것의 거세로 읽힐 수 있다. 상투와 단발에 매개되어 있는 숨은 의미를 그렇게 읽는 것은 집단의 관습이다. '상투'의 의미에서처럼, 숨어 있는 어떤 의미를 '누구나' 그 의미로 생산해 낼 수 있을 때, 이것을 '전형' 또는 '전형적'이라고 한다. 무궁화는 한국을 떠올릴 수 있는 하나의 전형이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의미는 매우 상투적인 것이어서 또 다른 의미를 생산할 수 있는 매개가 딱히 버린다. 의미의 매개성이 매우 단편적이다. 이런 것을 여기서 '단편적 전형'이라고 이름 붙이기로 한다.

한편 단발령의 심층적 의미를 더 찾아보자. 상투를 잘랐으니, 이발소를 찾아가야 하고, 머리 모양이 달라지니 한복도 벗어 던지고 양복으로 맞춰야 하고, 또 신발까지 구색을 갖추어야 한다. 의생활, 소비 생활, 의식, 문화가 식민지 자본주의 시장 쪽으로 완전히 뒤집어진다. 상투 하나 자른 것이 자꾸 다른 의미를 '매개시켜' 총체적인 한 역사의 의미를 생산하게 된다. 이 경우 상투 자르기의 의미는 자본 침탈 역사를 말하는 하나의 '전형'이 된다. 즉, 한 의미상이 매개적으로 재생산되어 총체적인 의미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때 의미는 매우 다층적인 매개를 통해 이뤄지므로, 이런 것을 여기서 '매개적 전형'이라고 이름하기로 한다.

앞에서 의미의 '매개성'을 입론할 때, 의미 생성 구조를 '상'을 끌어와 설명함으로써 그 성격을 일원론적 매개로 인식했다. 여기서는 매개된 의미를 '전형'이라 말하고, 그 매개성이 단편적이냐 다층적이냐에 따라 단편적 전형과 매개적 전형을 구별했다. 하나의 전형론으로 자리잡을 때는 매개적 전형이 더 중요할 것이다. 그런데 이 용어를 '다층적 전형'이라고 하지 않는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 '매개'의 개념에는 일원론적이면서 '주체'의 작용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주체의 작용·행위·실천의 의미가 세워지고, '문학행위(읽기/쓰기)', '문학행위 주체(독자/저자)'<sup>26)</sup>가 엄밀한 이론적 틀로 수렴하게 된다.<sup>27)</sup>

26) 함축적 의미의 독자와 화자도 포함할 수 있다.

27) 문학에서 작품 속의 화자로 퍼스나(persona), 시적 인물, 시적 자아 등의 개념을 쓴다. 유중호는 '주체적 독자'란 용어로 읽기 행위 주체를 말했다. 이때 '주체적'이란 언어학

현실주의(리얼리즘) 문학에서는 역사와 현실에 대한 운동과 실천을 중요하게 본다. 한국 근대문학에서 카프 문학 운동이 사회주의 사상에 입각해 실천했던 것은 잘 알고 있다. 이 ‘실천’은 마르크스주의의 역사 인식을 전제한 것이다. 그런데 신념에 찌던 사회주의 역사 인식은 1990년을 전후해서 현실적 해체를 맞게 되어 그런 식의 실천은 무력하게 되었다. ‘실천’의 이론적 틀을 고쳐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상 개념에 바탕을 두는 문학행위에서 ‘주체’와 ‘실천’은 지금 여기에 현전하는 주체이고 실천이며, 항상 ‘매개적인’ 의미 생산 작업이다. 그 작업의 문맥은 문학 텍스트 안에서, 밖에서도 이뤄질 수 있다.<sup>28)</sup> 이미 만들어진 의미는 계속되는 문학행위 가운데 ‘다시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전형이라는 것도 확보되어 있는 의미로서보다 ‘재구성’해야 하는 데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이 전형은 주체적인 의미 구성을 확보함으로써, 문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그 문학행위는 주체가 지금 여기 있기 때문에 현실적 생산이 되고 실천이 된다. 이 경우, 역사의 의미는 늘 ‘현전하는 것’이다.

리얼리즘 이론에서 전형은 현실과 역사에 대한 실천적 의미를 찾기 위한 개념이었다. ‘전형적인 것(Das Typische)’이라는 말이 원래 “역사적으로 중요하다”<sup>29)</sup>라는 뜻이라고 브레히트가 지적한 바대로, 전형의 개념에서 역사적 실천은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문체는 역사의 의미가 사회주의적 인식과 존재로서 결정되는 점이다. 변증법에 따라 역사의 ‘총체성’ 개념이 열려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궁극은 누구도 검증할 수 없는 완성역사의 목표점을 전제하고 있는

에서 언어 능력처럼, 문학에서 문학적 능력을 가지는, 곧 시를 시로서 대하는 주체를 뜻한다. 한편, 최두석이 말한 ‘시적 주체’란 리얼리즘론에서 창작 방법의 차원에서 다룬 것이다. 이런 용어들은 상의 개념으로 끌여온 ‘주체’와는 이론적 틀을 달리한다. 유종호, 『시란 무엇인가』(서울: 민음사, 1995), 11~31쪽; 최두석, 『시와 리얼리즘』(서울: 창작과비평사, 1996), 113~134쪽.

- 28) 『님의 침묵』 시집 끝에 ‘독자에게’에서 한용운은 시인이기를 부정하며, “여러분이 나의 시를 읽을 때에 나를 슬퍼하고 스스로 슬퍼할 줄을 압니다”고 했다. 시적 의미의 문맥을 시 밖으로 확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29) 베르톨트 브레히트 지음, 서경하 옮김, 『브레히트의 리얼리즘론』(서울: 남녘, 1989), 204쪽.

것이기 때문에 역사의 의미가 규범적이고 외재적이다. 이 지점은 실재 사회주의 사회가 많은 경우 왜 ‘타율적’인가를 확인시켜 준다.

루카치가 말한 ‘전형성’은 역사적인 ‘지금 여기’ 현상들과 같은 ‘개별자’와 ‘보편자’(본질·형이상학적 의미는 아님)를 가장 잘 매개해 주는 요소들, 예를 들면 ‘행동’, ‘상황’, ‘인물’ 등을 규정하는 개념이다. 전형성을 창조함으로써 예술가는 어떤 구체적인 인간들의 운명 속에서 그들이 속해 있는 특정 시대, 국가, 계급 등을 가장 잘 표출하는 ‘어떤 역사적 상황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구현시킨다.<sup>30)</sup> 개별자와 보편자의 이러한 ‘매개’ 결과는 양자를 다 보존하고 심화시키기 때문에 ‘전형’은 분리된 상태의 양자보다 미적으로 풍부하고 훌륭하다고 설명된다.<sup>31)</sup> 루카치의 미학에서 ‘전형성’은 ‘총체성’과 함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다. 그의 소설 이론은 그리스의 ‘완결된 문화’ 시대를 꿈꾸는 데서 출발한다. 그리스 서사시는 그 자체로 완결된 삶의 총체성을 형상화한 것이라면, 근대의 “소설은 형상화하면서 숨겨진 삶의 총체성을 찾아내어 이를 구성하고자 한다”<sup>32)</sup>는 것이다. 이때의 총체성은 인간의 총체성의 깊이라는 뜻에서 ‘내포적 총체성’이며, 그 인간은 자신의 사회·역사적 요소들과 상호작용하는 의미를 포함한다. 이 삶의 총체성은 작가가 만들어낸 전형을 통해서 획득된다.<sup>33)</sup>

그런데 그 전형은 어디까지나 ‘작가가 구성한’ 현실의 반영이다. 반영이론은 마치 ‘깨어진 거울’처럼 작가에 의한 현실의 굴절이란 문제가 제기되어, ‘생산이론’이 초점으로 떠올랐다. 예술 생산자로서의 작가, 생산으로서의 문학은 실재를 변화, 변형시키는 실천의 문제와 함께, 실재의 창조라는 측면은 리얼리즘의 태두리를 벗어나서 모더니즘으로 가는 것이라는 문제가 논란되게 했다.<sup>34)</sup>

---

30) 예를 들면, 소설 『탈출기』 가운데 박군과 같은 ‘인물’과 그가 처한 ‘상황’이 전형성을 획득함으로써, 이를 통해 그 시대의 보편적 진실을 말할 수 있다는 뜻. 줄고, “서해 최학승 연구-『탈출기』 분석을 중심으로”, 경희대 대학원 『고향논집』 제8집(1991).

31) B. 키랄리활비 지음, 김태경 옮김, 『루카치 미학비평』(서울: 한밭출판사, 1984), 93~102쪽.

32) 게오르그 루카치 지음, 심성완 옮김, 『소설의 이론』(서울: 심설당, 1985), 76쪽.

33) B. 키랄리활비, 『루카치 미학 비평』, 100~101쪽.

34) 김옥동, 『리얼리즘과 그 불만』(서울: 청하, 1989), 138~150쪽.



여기에는 리얼리즘 미학과 다른 이론과의 경계, 문학과 현실의 경계, 실천 등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론과 현실의 사이에서 현실을 변화시키느냐는 실천론은 현실과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는 문제와 밀접하게 결합될 문제이다. 이 점은 작가적 측면만이 아니라, 문학행위 주체가 항상 지금 여기 현실문제에 다시 보아야 할 부분이다. 이론은 ‘그러한데’ 현실은 ‘이러하다’는 답이 아니라, 현 시점에서 값하는 답을 요구한다.

그 길은 ‘현전하는 역사’로 전환함으로써 나온다. 역사나 ‘의미’나 행위 주체에 매개되어 있을 때 역사이고 의미이다. ‘매개적 전형’은 주체적 문학행위에 따른 현전하는 의미를 말한다. 여기서 의미와 행위는 서로 매개되어 있기 때문에 ‘실천이 문제’라는 식으로 뒤로 미루지 않는 당장에, 실천은 구현되는 것이다. 실천의 ‘일상화’<sup>35)</sup>라는 진정한 의미는 실천은 현실에 매개되고, 현실은 실천에 매개되어 있는 일원론적인 의미 생산들에서 답할 수 있다. 과정과 결과가 순차적으로 있어지는 것이 아니고, 당장에 실현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현전하는 값의 총체성으로 ‘주체’가 실존하고 역사가 존재한다.

이때 우리가 추구하는 현실과 문학은 현 시점에서 값하는 실천으로서의 문학, 실천적 리얼리즘의 길로 열린다.

## 2) 문학과 통일의 거리

현실에 없는 ‘통일’을 현실문제로 볼 때, 당연히 비통일이 문제의 대상이 된다. ‘통일 아닌 것’을 어떻게 통일이게 하는가. 비통일을 통일이게 하는 길은 어떤 매개가 없는 한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문제의 풀림은 곧 매개문제에 달려있음을 알 수 있다.

매개문제의 이론적 틀을 앞에서 세웠던 이유가 바로 그러한 매개 찾기에 있었다. 문학이 현실과의 관계에서 실천이고자 한다는 전제에서, 그것을 방법론

35) 백낙청이 『흔들리는 분단체제』(서울: 창작과비평사, 1998)에서 제기한 통일운동의 ‘일상화’ 문제는 인식의 틀 자체를 바꿈으로써, 여기서는 일원론적 사고를 통해 그 진정한 의미를 얻는다고 본다.

으로 해서 다음 작품을 보고자 한다.

**단편적 전형: 「열쇠」, 「림진강」**

류도희의 「열쇠」<sup>36)</sup>와 김명익의 「림진강」은 이산가족의 아픔을 소재로 한 소설이다. 가족이 남북으로 헤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민족의 분단이다. 그런데 민족 분단에서 복잡한 내외적 문제들을 접어두고, 이산가족은 분단문제, 가족 상봉은 동일이라고 하는, 가장 단편적 전형으로 통일문제를 말하는 것은 너무나 뻔한 이야기가 되게 한다. 그 의미가 현실에 미칠 수 있는 힘은 줄어들고, 또 다른 의미를 생산할 수 있는 매개가 막혀버린다.

그러면 이 작품은 재론할 여지가 없는가. 아니면, 매개의 단편성을 재구성하는 ‘다시 읽기’ 작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작품의 줄거리가 요약되면 1차 의미는 나온 것이다. 이것을 다시 읽어서 ‘의미를 재구성하는 작업’, 곧 구성(構成, plot)을 통한 주제의 재생산 작업이 필요하다. 이때 ‘구성’이란 흔히 발단, 전개, 절정, 대단원으로 나누는 식의 작가의 서술 구성을 뜻하지 않는다. 구성이란 인물, 사건, 상황, 모티프 등 작품을 형성하는 요소들 가운데 어떤 근간을 세워서 다른 요소와의 매개적 인과관계를 재구성하여 얻는 이야기의 골격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작품에 한 개의 구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읽기에 따라 여럿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읽기’의 문학행위는 의미 생산 작업을 뜻한다.

「열쇠」는 은평 관개 부속품 공장 지배인 박성규가 늘 몸에 지니고 있는 열쇠 이야기이다. 1950년 여름, 경기도 가평에 있는 고향집을 떠나올 때 어머니가 준 열쇠는 아들이 아무 때나 돌아와도 삼짍문 밖에서 기다리지 않게 하려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집을 나올 때는 곧 돌아오리라 생각한 길을 ‘분단’이 막았던 것이다.

「림진강」의 1차적 의미는 이렇다. 숙희는 도 농촌경리위원회에 근무하게 된 남편을 따라 도시로 이사 가서 부러운 것 없이 살고 있다. 외딸 숙희는 림진강가 림강 마을에서 홀로 고향집을 지키면서 양수장 관리를 도맡아하고 있는 어머니를 꼭 모셔가서 여생을 편히 지내게 할 요량으로 고향에 내려왔다. 숙희는

---

36) 류도희, 「열쇠」, 『조선문학』(1990.4).

어머니한테서 36년 전 아버지가 열병에 걸린 오빠를 엮고 강 건너 명의를 찾아가던 직후 ‘군사분계선’이 그어지고 영영 헤어지게 된 사연을 듣는다. 그래서 남편과 아들이 돌아올 통일의 그날을 기다리며 고향집을 지키며 지내는 어머니를 이해하게 된다.

가족이 분단으로 인해 헤어지는 고통을 직접 체험한 세대에게 통일은 목숨과 같은 소원이다. 통일을 절실하게 요구하는 바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래서 이산가족의 전형은 통일에 매우 중요한 매개가 된다. 다시 말해, 가족과 헤어진 고통을 직접 체험한 세대와 미체험 세대를 어떻게 매개시키느냐에 따라 통일로 가는 길목을 결정할 것이다.

「열쇠」에서 박성규는 어머니가 준 ‘열쇠’에 담긴 사랑 때문에, 이산의 문제를 ‘잊지 않고’ 또 오직 일에 열중해 아픔을 위안하기도 한다. 그에게 일의 의미는 이로써 뒷받침하는 사회 발전이 통일의 역량이 된다—작품 가운데 왜 그런지 매개적 의미는 없었다—고 인식한다. ‘문소리’, 문상(問喪), 가족관계 등 등 생활과 직장의 일들은 열쇠에 담긴 사랑의 의미를 해가 갈수록 더욱 생생하게 복원해 내는 매개물이다. 안해는 그런 남편을 통해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고향과 홀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깊은 아픔과 열중하는 일의 의미를 간접 체험한다. 이처럼 동세대는 생활의 의미를 함께 함으로써 어렵지 않게 ‘열쇠’와 같은 매개상을 확보할 수 있다. 다음 세대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안해는 ‘어머니에서 아들로’ 전한 사랑의 ‘열쇠’를 생각하고, ‘어머니에서 딸’로 이어지는 사랑의 의미에서 시집가는 딸에게 현관문 ‘열쇠’를 건넨다. 그러나 후세대에게 ‘열쇠’를 매개적 전형으로 인식시켜 줄 인물과 사건은 미미했다. 즉, 아버지의 이산 고통이 딸 남획의 것으로 되기에는 거리가 많은 것이다.

반면 「림진강」은 숙희가 고향에 가서 어머니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림진강」에 깃들인 어머니 삶과 아픔을 자신 가운데 유전받는다. 의미의 세대 생산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와 같이, 한 시대의 의미를 단절시키지 않고 다음 역사로 세대적 생산을 하는 것이 과연 현실역사의 총체성일 수 있을까. ‘임진강’ 같은 한 ‘의미’를 물려주는 단편적인 역사에는 ‘반복’은 있지만 새로운 의미/역사는 없다.

‘열쇠’, ‘임진강’ 상징처럼 주유훈의 「어머니 오시다」<sup>37)</sup>의 ‘바이올린 활 조이개’, 한익훈의 「부탁」<sup>38)</sup>의 ‘노란 안경집’ 등등으로 상징되는 이산의 고통과 만남의 열망 가운데, 통일의 의미는 갖가지 ‘사연’으로 재생산될 수 있다. 또 최태현의 「보패 누나」<sup>39)</sup>에서 아버지를 찾아 밀항선을 탔다가 북한 동조죄와 탈출죄로 구속된 ‘김보패’나, 김정희의 「기다리는 마음」에서 미군의 원자탄 선전에 속아 남쪽으로 피난을 떠났다가 포탄에 소경이 된 ‘동화’는 분단 비극의 희생양으로 비추면서 통일을 위해 몸을 바치는 투사로 그린다. 길태복의 「잃었던 세월」<sup>40)</sup>과 남대현의 「상봉」<sup>41)</sup> 등은 남한의 현실은 모순투성이어서 이민이나 제3국을 경유하는 길을 찾음으로써 이산가족 상봉의 길을 연다.

분단의 고통을 말하는 그와 같은 무수한 소설적 ‘사연’에서 어떻게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또 그 길이 어떻게 통일일 수 있을까. 다음에서 이 문제를 살펴보자.

#### 매개적 전형 : 「산제비」, 「쇠띠르레기」

「열쇠」와 「림진강」이 이산가족의 아픔을 전면에 내세워 말했다면, 리종렬의 「산제비」<sup>42)</sup>는 월북시인 박세영을 ‘중간적 인물’ 또는 ‘매개적 인물」<sup>43)</sup>로 설정함으로써, 이산가족 문제보다 민족 보편적인 통일 의미로 그 아픔을 끌어올려

37) 주유훈, 「어머니 오시다」, 『조선문학』(1990. 5).

38) 한익훈, 「부탁」, 『통일문학』 8호(1991. 3).

39) 최태현, 「보패 누나」, 『통일문학』 3호(1989. 12).

40) 길태복, 「잃었던 세월」, 『통일문학』 9호(1991. 6).

41) 남대현, 「상봉」, 『조선문학』(1992. 7).

42) 이종렬, 「산제비」, 『통일문학』 6호(1990. 9).

43) ‘중간적(중도적) 인물’ 개념은 루카치의 『역사소설론』에서 비롯된다. 루카치는 ‘개인적 인 정열’과 ‘사회적 질서’의 조합이라는 요소로 ‘세계사적 개인’을 말했는데, 이것은 인물의 전형성을 구현하는 데 적합하다고 했다(B. 키랄리할비, 『루카치 미학 비평』, 152 쪽). ‘중간적 인물’은 세계사적 개인처럼 개인과 사회·역사를 아우르는 입장의 인물을 뜻한다. ‘매개적 인물’은 중간적 인물 개념을 발전시킨 것이다. 앞에서 ‘상’의 일원론적 틀에서 ‘매개’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대로, 이 매개의 의미를 인물 유형에 적용, ‘중간적’을 ‘매개적’ 뜻으로 변형한다. 따라서 작품 속의 인물들을 재구성하여 읽을 때, ‘매개적 인물’을 통해 총체적 의미망을 확보할 수 있다.

다루었다.

이 소설은 경기도 고양 출신인 박세영의 시세계와 1989년 평양에서 열린 제 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서울 대표로 참가했던 임수경을 모티프로 삼았다. 1938년 시집 『산제비』를 펴냈던 박세영은 일제강점기에 염군사 동인, 카프 맹원으로 활약했고, 월북한 후 북한의 애국가 가사를 비롯해 총 1,800여 편의 시를 남겼다. 그는 “분단의 아픔을 피눈물로 체험한” 세대의 문인으로서 간절하게 통일을 그리다가 죽었다. “말년에 그한테는 통일이 그 어떤 정치적 개념이 아니라 아름다운 너인의 모습으로 인격화되어 있었다”고 했던 바, 미망인 김숙화가 임수경의 소식을 듣고는 통일이 눈앞에 다가온 듯 열광하지 않을 수 없었다. 김숙화에게 임수경은 로시인이 남긴 「산제비」에 “너희야말로 자유의 화신 같구나”고 했던 그 모습이었다.

그 시는 이 소설 속의 박세영으로 하여금 ‘매개적 인물’로 자리매김하게 한다. 서정이 없는 구호시에 대한 비판, 서정은 시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문제의식, 남북의 문학이 작품의 소재와 주제, 쓰는 방법도 달라져 점점 이질화하는 것에 대한 통탄 등, 이런 문제들은 남녘의 친척들과 문우를 추억하는 개인적 열정에 매개된 문학의 보편성을 말한다. 또, 그 문제를 일제강점기에서부터 계속했던 오랜 시작 활동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를 역사적으로 매개시켜 통일의 총체적 의미를 지향한다. 이런 의미를 그의 시에 매개시켜 보면, “남국에서 왔나/ 북국에서 왔나/ 산에도 상상봉/ 더 오를 수 없는 곳에/ 깃들인 새”로 형상화한 ‘산제비’는 남국과 북국을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의미를 낳는다. 이 점은 왜 그가 말년에 정치를 떠난 ‘통일 여인상’을 그렸고, 그 염원을 미망인 김숙화가 어떻게 임수경 속에서 발견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지점이다.

그런데 「산제비」의 매개적 인물은 그 전형성을 상당 부분 소설의 바깥에 있는 실제 인물들의 면모에 기대어야 총체적으로 얻을 수 있다. 반면, 립종상의 다음 소설은 이 문제를 작품 속으로 녹여 넣었다.

「쇠찌르레기-취재수첩을 펼쳐놓고」<sup>44)</sup>는 북한의 조류학자 원흥구 박사(1970년 작고)와 1950년에 월남한 그의 아들 원병오 박사에 대한 실화를 바탕

44) 「쇠찌르레기-취재수첩을 펼쳐놓고」, 『조선문학』(1990. 3).

으로 해서 창작했다. 또 이 이야기는 북한과 일본이 합작해서 극영화 “새”<sup>45)</sup>로 만들었다. 오영수의 「새」<sup>46)</sup>는, 원병오 박사가 아버지 작고 소식을 소련 등 각국의 조류학자를 거쳐서 수개월 후에 일본의 산계조류연구소 소장의 연락으로 들었다는 이야기를 실명 단편 소설로 쓴 것이다.

시차는 있지만 남의 「새」와 북의 「쇠찌르레기」에 담긴 통일 의미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 점은 매개적 구성의 중요성을 확인시켜 줄 것이다.

「새」는 이야기 당사자의 친구인 ‘나’의 시점으로 썼다. 주요섭의 「사랑 손님과 어머니」처럼 제3자의 이야기를 1인칭 시점으로 취할 때는 오히려 그것을 설득력 있게 객관화시킬 수 있다. 그런데 「새」는 그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야기가 ‘나’의 푸념으로 들리게 했기 때문이다. 그 내용은, 원병오가 가락지를 끼워 날려보낸 새가 평양으로 날아가 그의 아버지 원 박사 손에 들어간 소식을 알고도 서로 만날 수 없었고, 또 아버지가 죽었다는 부음도 수개월 후 세계 조류학자들의 입을 거쳐 듣게 된다는 반인륜적인 ‘분단의 통한’을 담고 있다. 화자인 ‘나’도 20년 동안 가족과 헤어져 사는 실향민이다. 이야기를 들어주는 다른 친구는 가솔이 몽땅 넘어와 기반을 잡은 사람이다. 것처럼 당사자, 화자, 청자가 입장에 따라 사건을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차이로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화자가 하는 이야기가 ‘넋두리지만 피가 묻은 넋두리’라고 절규할지라도, 그저 한잔 마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만 남게 만든다. 이 고통이 보편적 의미를 얻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서 사회 역사적 매개 인물·사건을 찾아내는 작가적 노력으로, 총체적 의미망을 구성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쇠찌르레기」는 복합적인 시점으로 의미를 구성해 나간다. 1인칭, 3인칭, 전지적 시점이 겹쳐져 있고, 때로 시점 혼동까지 일으키는데, 이산의 아픔을 다 각도로 읽어내는 문제와도 관련 있을 것이다. 이산가족의 고통은 직접 당하는 개인의 문제이면서, 분단 고통을 간접 체험하게 하는 매개자이다. 그리고 그 해법은 통일 차원으로 풀어낼 수 있는 역사적 문제이다. 이것은 인정으로 말하면 아주 간단한 일이지만, 결코 간단할 수 없는 총체적인 국면으로 이해해야

45) 1992년 9월 제5회 동경 국제 영화제의 아시아 수작 영화 주간에 상영되었다.

46) 오영수, 「새」, 『현대문학』(1971. 8).

한다. 1998년 4월 베이징의 남북한 차관급 회담에서 '상호주의 원칙'으로 대북 비료 지원과 이산가족 교류문제를 연계하려 했지만, 결국 어느 것도 성사시킬 수 없었던 일을 보았다. 정으로 따지면 안 될 이유가 없다.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이룰 수 없는 '현실의 의미'를 깊이 있게 읽어야 한다. 이것을 문학적으로 말하면, 매개적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쇠씨르레기」가 보여주는 복합적이고 매개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이 작품은 오영수의 「새」와 같은 모티프이다. 「삼촌의 사진」과 「삼촌에게 보내는 편지」가 또 다른 사건을 만들어냄으로써 소설적 의미를 발전시켜 나간다. 즉, 형식과 내용에서 중층적인 매개에 의해 '매개적 전형'을 만들어낸다.

먼저, 이야기의 구성을 보자. 「쇠씨르레기」의 주요 등장인물은 20년 전에 세상을 떠난 원홍길 박사, 그의 손자인 조류학자 창운, 창운의 막내삼촌인 병후이다.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이야기 속의 이야기라면(주 구성, main plot), 화자가 그것을 하나의 소설로 재구성하는 것은 이야기의 틀이 된다(종 구성, subplot). 화자는, '취재수첩을 펼쳐놓고'라는 부제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작가인 '나'이다. '나'는 한때 기자를 했던, 창운의 대학동창이다. 이야기의 시제는 1인칭 화자 시점에서 보면, 대과거, 과거, 현재로 구성된다. 대과거는 20여 년 전인데, 병후가 쇠씨르레기에 가락지를 끼워, 말하자면 '안서'를 띄워보낸 썸인 사건을 취재할 때 이야기이다. 과거는 지난 여름인데, 창운이 '서툰 글을 작가님이 한번 봐 달라'고 자기 집으로 초청한 때이다. 현재는 취재수첩을 펼쳐놓고 소설을 쓰는 현재이다. 소설은 과거로 올라가서, 창운이 보여주는 '편지'를 읽어내려 가면서, 사이사이 '나'와 창운이 대화를 하거나, 창운의 회상, 또는 편지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건의 문맥을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한다. 소설의 끝은, 창운의 편지를 다 읽고 한동안 얼 없이 앉아 있어야 했던 방문 하룻밤의 '과거'에서 돌아와, '현재' 시점에서 그런 이야기를 적은 취재수첩을 덮고 끝난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 이야기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편지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끝내지 못한 취재를 다시 이어 마치고 장편소설 『쇠씨르레기』를 쓰는 일이다. 왜 이야기는 열려 있는가. 독자는 이

의미를 어떻게 재구성해야 하는가. 이런 점이 무엇을 말하는지 매개적 의미를 읽어낼 때, 앞에서 말한 구성의 주·종 관계는 주·종관계가 아니라, 서로 매개되어 고도의 총체적인 의미를 생산하게 될 것이다. 이 점을 살펴보자.

편지는 열 한 살 때 헤어진 조카 창운이 40년만에 서울에 있는 막내삼촌에게 보내는 것이다. 일본 조류학자가 창운을 찾아와, 자기와 함께 찍은 '삼촌의 사진'을 방문 기념으로 주면서 삼촌에게 편지를 전해주겠다고 해서 썼다. 편지에는 집안의 역사가 다 나온다. 할아버지가 '북방 쇠찌르레기'를 연구함으로써 삼대에 걸쳐 조류 연구 가족이 되었고, 민족 분단으로 미완의 『조선조류지』를 낼 수밖에 없었고 '새들은 분계선을 넘어' 삼촌의 소식을 확인하게 했고, 할 말을 남긴 듯 입을 벌린 채 자식(병후)에게 할 유언을 한으로 품고 세상을 떠나고...; 부모 임종을 못한 아들은 쓰린 회오 속에 고향을 그리 달려와야 할 엄연한 현실이 있다. 편지에는 이산가족의 한과 학문의 단절을 통해 매개하는 민족 분단의 모순을 보여준다. 이때 개인의 문제와 사회·역사적 문제를 동시에 구현하는 매개적 인물은 할아버지다. 그것을 다시 통일의 총체적 문제로 매개하는 의미는 소설 전체의 구성 차원으로 이뤄진다. 그 구성을 세 가지 상징으로 읽으면, 이산가족의 아픔을 매개하는 '쇠찌르레기', 민족 분단 고통을 말하는 미완의 『조선조류지』, 통일의 역사적 의미를 총체적으로 매개하는 장편 소설 『쇠찌르레기』이다.

미완의 『조선조류지』, 미완의 소설, 이야기의 주변 '일본' 등은 분단의 구체적 현실이면서, 통일문제에 접근할 때 중층적으로 매개시켜 보아야 하는 현실의 전형들이다. 통일은 정치체제의 연합이나 통합으로 완수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현실 속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마다 걸려 있고 「쇠찌르레기」 속에 '일본'을 거치는 것처럼, 주변 국가들의 이해관계와 매개되어 있다. 『조선조류지』의 매개적 의미가 없어, 원홍길 박사의 학문적 완성은 없다. 또 그의 업적은 아들과 손자의 연구로 매개하는 것이어야 역사적 의미, 전형성을 획득한다. 여기서 진정한 의미의 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고 통일이 있게 된다.

그러한 매개적 의미 찾기가 '실천적 리얼리즘'으로 「쇠찌르레기」 읽기이며, 열려 있는 소설, 장편 『쇠찌르레기』 쓰기가 된다.



### 3. 맺음말

지금까지 복한 소설 읽기는 이 자체가 하나의 문학행위이고 의미 생산의 글 쓰기였다. 이것은 '상'이라는 일원론적 인식과 실천의 의미로 설정한 '매개'와 '전형'의 개념을 핵심 용어로 하는 방법론에 근거했다. 상은, ① '스스로 지음'이라는 적극적인 의미 생산 주체를 세우고, ② 이것이 '혼자'라는 뜻이 아니고 주체와 대상의 '매개'라는 사회·역사적 의미를 세운다.

모든 의미는 고정시키고 절대화시키면 '상투적'이게 되고, 현실과 동떨어지게 된다. 그렇다고 의미를 '현상'의 변화만큼 풀어 풀어놓으면, 건어잡고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의미는 '회'로 빠지게 된다. 이 양쪽의 눈으로는 진정한 의미를 잡을 수 없지만, 우리에게 삶이 있고 절박한 현실과 역사가 있다. 바로 여기서 문제를 보는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는 중요한 지점에 있음을 확인한다. 이렇게 스스로 보는 '눈'은 바로 행위 주체를 세우는 문제가 되었다.

이것을 문학적으로 설명할 때는 의미를 만들어 가는 '매개상'이자 '의미상'을 찾아내는 것으로 나타난다. 상투와 상투 자르기로 설명한 바대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가는 고리를 어떤 지점에서 잃어버리면 '단편적 전형'이라는 좁은 의미에 머물 것이고, 새로운 의미 고리들을 자꾸 중층적으로 만들어 가면 '매개적 전형', 곧 의미의 총체상으로 접근해 갈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론에서 단편적 전형의 의미로 분석한 작품들도 다시 새로운 의미를 생산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 이를테면 그런 작품에서 한결같이 읽을 수 있었던 것은 이산의 아픔과 이것을 간절하게 풀어내고자 하는 한(恨)이었다. 한은 민족의 가장 보편적인 정서이면서 좀처럼 풀리지 않는 응어리이다. 그러나 이것은 오매불망(寤寐不忘) '기루움'이고 '간절함'이기 때문에, 생명의 즐거운 지향성이다. 소월의 「먼후일」이나 「못잊어」에서 잊으려 잊으려 해도 결코 잊을 수 없었었고, 만해의 「나는 잊고저」에서 잊고자 할수록 끊임없는 생각 생각이고, 만약 잊을 수 있다면 그 길은 죽음이기 때문에 진짜 목숨을 걸어야 할 문제였다. 이와 같은 민족적 한의 힘으로써 통일문제 소설들을 매개적

으로 읽을 때 그 현재의 의미를 살릴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소설읽기에서 의미의 매개성을 놓치지 않고 찾아가야 하는 문제를 가지고서 현실역사를 모두 읽을 수는 없다. 읽기에서 현실로 매개하는 최소한의 '독자 주체'를 세웠지만, 독자의 구체적 현실의미를 말할 '당과성'은 논하지 못했다. 본론에서 '매개'의 일원론적 특성으로 인하여, 매개하는 양쪽을 아우를 수 있는 길은 터놓았지만, '일원론'의 의미를 분명하게 붙잡지 못했다. 일원론은 실제로 불이(不二)의 개념으로 정립해야 하는데, 이것은 개성을 살리면서 통합적으로 보아야 하는 현실문제 때문이다.

실제로 통일문제에서 남과 북이 동시에 살면서 함께 해야 할 길을 찾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이런 작업이 이 글에서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최소한 소설을 읽어가는 "문학적 행위"의 중요성은 확인해 보았다고 본다. "스스로 움직이는 것은 산 것이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죽은 것이다"는 만해의 갈과대로, 산 목숨으로 살아가는 최소한의 의미 요구가 아직은 문학에 살아 있다고 보았고, 이 글은 이것의 실천적 의미를 전제로 하는 '읽기' 작업이었다.

다음 읽기로는 '통일문제 문학'을 남한 작품 중심으로 읽고 이것을 북한과 비교하는 일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뼈국새가 노래하는 곳』(서울: 살림터, 1994).  
『쇠찌르레기』(서울: 살림터, 1993).  
"조국통일주체의 작품을 왕성하게 창작하자", 『조선문학』 머리글(1990. 5).  
길태복, 「읽었던 세월」, 『통일문학』 제9호(1991. 6).  
김명익, 「림진강」, 『쇠찌르레기』(서울: 살림터, 1993).  
김정, 「기다리는 마음」, 『쇠찌르레기』(서울: 살림터, 1993).  
남대현, 「상봉」, 『조선문학』(1992. 7).  
류도희, 「열쇠」, 『조선문학』(1990. 4).

- 주유훈, 「어머니 오시다」, 『조선문학』(1990. 5).
- 최태현, 「보패 누나」, 『통일문학』 제3호(1989. 12).
- 한용운, 『님의침묵』 영인본(서울: 회동서관, 1926).
- 한익훈, 「부탁」, 『통일문학』 제8호(1991. 3).
- 강정인, “북한연구방법론: ‘내재적 접근법’에 대한 비판적 성찰”, 『동아연구』 제26집(1993. 8).
- 김옥동, 『리얼리즘과 그 불만』(서울: 청하, 1989).
- 김윤식, “남북한 현대문학사 서술 방향에 대한 예비 고찰”, ‘민연학술세미나’, 1995. 8. 29.
- 김재용, 『북한문학의 역사적 이해』(서울: 문학과지성사, 1994).
- 노귀남, “‘인민성’의 문제로 읽은 북한문학의 변화와 전망”, 『경희어문학』 제17집(1997. 2).
- \_\_\_\_\_, “북한문학의 혁명전통과 전형의 변화”, 『새국어교육』 제54호(1997).
- \_\_\_\_\_, “한용운 시의 ‘상’ 연구”(경희대 국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6).
- 백낙청, 『분단체제 변혁의 공부길』(서울: 창작과비평사, 1994).
- \_\_\_\_\_, 『흔들리는 분단체제』(서울: 창작과비평사, 1998).
- 백진기, “북한의 문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실천문학』(1989 여름).
- 유종호, 『시란 무엇인가』(서울: 민음사, 1995).
- 윤지관, 『리얼리즘의 옹호』(서울: 실천문학사, 1996).
- 이온죽, 『북한사회연구-사회학적 접근』(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8).
- 정재서, 『동양적인 것의 슬픔』(서울: 살림, 1996).
- 최동호 편, 『남북한 현대문학사』(서울: 나남, 1995).
- \_\_\_\_\_, “남북한 현대문학사 서술을 위한 몇 가지 시각”, ‘민연학술세미나’, 1995. 8. 29.
- 최두석, 『시와 리얼리즘』(서울: 창작과비평사, 1996).
- 최완규, 『북한은 어디로』(마산: 경남대학교 출판부, 1996).
- 홍용희, “통일시대를 향한 문학적 도정”, 『자유문학』(1997 봄).
- 게오르크 루카치 지음, 심성완 옮김, 『소설의 이론』(서울: 심설당, 1985).
- \_\_\_\_\_, 이영욱 옮김, 『역사소설론』(서울: 거름, 1987).
- 베르톨트 브레히트 지음, 서경하 옮김, 『브레히트의 리얼리즘론』(서울: 남녘, 1989).
- B. 키랄리할비 지음, 김태경 옮김, 『루카치 미학비평』(서울: 한발출판사, 1984).

(Abstract)

## The Distance Between Fiction and Reality : Problems of Unification

*Noh Gwi Nam* (Kyunghee University, Literature)

North Korean literature is a product of the NKCP. The writers believe that their literary goals and writing methods are correct and are never skeptical of their literary meaning. South Korean literature by contrast has nothing to unite its aims and methods. Obviously, no meanings are absolutely right. South Korea's literary autonomy and aims are different from North Korea,--their literary facts contain different values according to their different world view.

There is a need for a meta-theory to criticize North Korean literature. This paper focuses on the theory of realism and comments on socialistic realism. In realism it is important to relate between fiction and reality and to interpret how we may apply literature to real social problems.

In response to these issues, I propose the concept of "相"(*lakṣaṇa*). This term is a monistic Oriental World View. It is the monism of being, knowledge, and praxis. "Practical realism" invokes "相". The key words here are mediation (媒介) and type (典型).

This theory provides important meaning for literary practice as related to literature and reality. According to the monistic thinking the meaning simultaneously involves "the subject", the literary actor (writer or reader) and creates a "mediated meaning" grasping both reality and historical problems. There are two kinds of meaning. One is fragmentary, the other is mediated that is multifocused and stereoscopic. In this case, character, affair (episode)

and situation are closely related to one another.

The *laksana* simultaneously establishes the subject and create the meaning of the text reading over again. North Korean fiction is practical writing. The significance of its praxis can narrow the distance between fiction and reality regarding the problems of unification.